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위한 기도가 되기 - 1 부

지난 몇 년 동안 대량 총격 사건과 같은 국가적 비극이 있을 때 기본 반응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돌아옵니다. 폭력을 막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더 엄격한 총기 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폭력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와 세계에 스며드는 폭력에 맞서 일하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폭력을 끝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일절 기도하지 않을 것인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인도와 힘을 청원하지 않고 전투에 나갑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고전분투합니까?

우리의 거룩한 회칙은 “예수께서 성부의 참 흠숭자셨던 것과 같이 회원도 기도와 관상이 자신의 온 존재와 활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8a 조)라고 열렬히 진술합니다. 고대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들의 원수들과 억압으로부터 구출해달라고 하느님께 부르짖으며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같은 열정과 확신으로 하느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가 선지자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배 기간 동안 수사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보호의 벽이 필요하였으며 느헤미야는 하느님께 기도했고 하느님은 그를 보내셔서 이 벽을 지었습니다. 느헤미야 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가 가야 할 길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이 끝날 무렵에는 성벽이 쌓이고 느헤미야는 백성의 회개와 하나님과 하느님의 계약으로의 복귀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삶의 비극, 삶의 폭풍, 폭력과 증오를 통해 하느님은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까?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올해 초, 저는 재속 프란치스칸 형제자매들이 엎드려 회개하고 하느님께 우리의 혼란한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부르짖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줌에서 애도와 희망을 위한 두 개의 별도기도회를 주최했습니다. 미국과 괌 전역에서 온 약 150 명의 프란치스칸 회원들이 참석 한 두 모임 모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나라를 치유하는 것은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역대기서의 구절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 시켜 주겠다.” (역대기 하 7:14)

평화와 사회 정의를 추구하라는 부름은 상당히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고대의 선지자들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시작하기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활력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또는 입법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또는 형제회 회원들을 모아 기도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왕국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이 분쟁과 폭력의 시대에 내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을 때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 다운로드되었습니다. 나는 가상기도회에서 이 시를 공유했고 여기에서 공유합니다.

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애도의 시

폭력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연민과 보살핌만 있는 곳

절망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 희망을 품고 번영하는 곳

분열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이웃은 우리 편이고 우리는 항상 단합의 일에 신경을 씁니다.

전쟁, 불의, 억압, 분열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아이들이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고 낮의 빛을 보기 전에 버려지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연민과 공감, 보살핌이 표준인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자비와 평화의 보호막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나서 다가갑니다.

이런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상상해보기 위하여 한순간, 한 숨을 쉬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숨 쉬고, 느껴 보고, 보십시오; 진정으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느님, 우리 구세주 하느님, 우리 위로자 하느님의 것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지키고 보살 피고 사랑하고 잘 보전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가 없도록 하라고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경작하며, 심고, 거두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로 무엇을 했습니까?
오, 우리가 그 대가로 뭘 했는지 보세요

오 하느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느님, 제발 들어주세요!
우리가 비탄과 슬픔으로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러나 당신은 두 번째 기회의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은 달콤한 용서의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은 그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이십니다 -
특히 우리가 당신의 뜻에 유의하지 않았을 때.

오 주님,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서
와 우리를 위해 당신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우리 자신을 겸손하고, 기도하고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나라를 치유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계속해서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